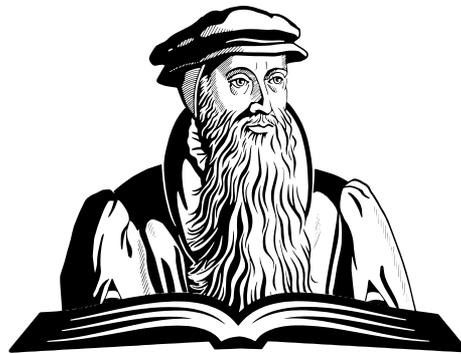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3: 유업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3

유업

강의 주제: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유산의 약속된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함을 위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3-4).

강의 스크립트 13

전체 과정 가운데 여기쯤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단순히 그 본문의 내용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보다는 진리의 전체적인 경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체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주어진 본문이나 이야기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분별해 내기 위해서 각각의 점들을 연결해야 하는 필요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서 약속의 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은 왜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것은 유업이라는 개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교회에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약성경에 전달되었습니까? 신약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주제들 위에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약속의 땅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 기초적인 주제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담에게 원래 주어진 땅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그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비슷하고 새롭게 갱신된 요구와 함께 새로운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의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여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을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를 성취하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일곱 개의 사악한 국가를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해야 했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들

은 호흡이 있는 어떤 것도 살려주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중에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어떤 살아 있는 짐승도 살려두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국가 밖에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는 죽여야 했지만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소는 살려도 되고 전리품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의 땅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1 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8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은 기대는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더욱 커져 갔습니다. 요셉의 뼈를 기억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이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사백 년 전에 이미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그 자손에게 약속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유업의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언약적 헌신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분량만큼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분량을 자신의 지파 안에 있는 다양한 가문에게 그들이 영원히 보존해야 할 유업으로 할당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예외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레위인들은 그 땅에서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들의 유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몇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1,2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족은 유업에 대한 약속은 결코 궁극적으로 지리적인 의미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분의 임재와 같은 영적인 유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언약이 땅에 적용된 이 상황 속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되 믿음에 응답하는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명의 불신하는 정탐꾼과 믿음을 가진 두 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것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열 명의 정탐꾼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저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고 스무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한 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24에 있는 갈렙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마지막인 1장과 23장에는 순종의 열매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백성 안에는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인 가시적 교회와 참된 신자들인 비가시적 교회의 구분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2장과 9장과 같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 원리는 남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원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31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2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이에 대한 한가지 예는 광야에 있었던 구리뱀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14,15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앞서 맺었던 언약의 확증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도 역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언약의 표시이며 인장입니다. 또한 그는 길갈에서 언약의 음식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정복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만나가 그치고 옥수수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므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약과 그리심산과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개요를 보면, 처음 12장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고, 13-21 장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22-24장에서는 그 땅에서의 안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곧 이 마지막 부분이 가진 중요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간략한 개요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풍성한 복음 진리로 가득찼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피성이 가진 신학적인 중요성과 어떻게 이 도피성이 우리의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짜여진 복음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리키는 것은 그 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실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음 요점으로 안내합니다. 둘째, 성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인이요, 장막에 거하는 체류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자신의 역할 전체에 대하여 경험할 때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낯선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으며, 순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전달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본향을 잃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신들에게 속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막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온 땅의 디자인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약속된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는 그 땅의 상징을 넘어서 그 땅이 상징하는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10과 1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은 새예루살렘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위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시선을 그 땅 너머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이 상징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신약에도 들어와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요, 일시적인 체류자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거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에 있는 것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처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땅과 유업의 약속 전체가 가지는 상징주의는 신약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4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주신다고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2,3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함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

사장들과 같이 우리의 유업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24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은혜언약의 발전과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9:15) 요한계시록 21:7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도 언약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할당했듯이 하나님은 천국에서 각각의 신자들에게 나눠줄 분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누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까? 히브리서는 이 성취도 역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4:9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둘 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1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병렬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 사명을 주실 때, 그 분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현재의 지리적인 땅과 그 땅이 유대인들과 교회에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된 강조를 하는 바람에 신학적인 범주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원래의 상징주의가 신약에서 이루는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구약의 땅에 대한 약속에 멈춰버립니다. 앞서 보았듯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저자들이나 모두 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사사기와 룯기가 이 강의 주제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땅을 정복했던 시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의 왕조의 탄생을 연결해 주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순종의 열매와 함께 믿음으로 들어갔듯이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약은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분깃 안에 있는 사악한 국가들을 쫓아내고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요한 반응 중에 하나는 나태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이 나라들을 쫓아내는 일을 실제로는 꺼렸다는 사실과 그 나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탐욕에 잘 나타납니다. 존 칼빈이 언급했듯이 “그들은 오직 한 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지배권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상숭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부패해졌고 부도덕과 자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망가뜨리고 약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고 또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2:3과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표면으로 끓어오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징책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구원자와 사사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을 개혁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안식을 누리지만 곧 죄-하나님의 진노-징계-구원에 대한 탄원-개혁-국가의 방향을 정함-안식이라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매번 그들은 금세 자신들의 완고한 길로 되돌아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

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이 표현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남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삶의 방식과 거짓 경배의 영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강력한 울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14-18을 읽어 보세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약 교회를 향해서 같은 언약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14-18은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했던 사실 위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구약성경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모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또한 사사들과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비하심도 봅니다. 하지만 매번 이 구원은 한 세대 정도 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원가 이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4:8에 나오듯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 곧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만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속받은 왕국에 대한 통치를 받을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룯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입니다. 룯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경험했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28:5 이하에 나오듯이 이는 언약의 저주가 임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공급이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는 이방인인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두 명 다 모압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후에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룯의 믿음과 룯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룯기는 복음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강의와 관계가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룯기의 여러 주제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율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룯기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대결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5:5 이하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남성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부인과 결혼하고 그의 형제를 위한 자손을 양육하며 이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속한 유업과 땅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25장에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친척 혹은 구속자 혹은 가까운 친족 혹은 다음 친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땅을 상실한 가족의 땅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구속할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이를 통해 그 가족을 보호하고 방어막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룯기에 이러한 개념이 가장 분명하게 나옵니다. 친척이자 구속자를 의미하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작은 책에 스무 번이나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책의 지배적인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 이면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친족으로서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은 많습니다. 그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매매해서는 안되고 구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친족 구속자는 한 가족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노예신분에서 한 가족의 일원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계대결혼을 담당할 수도 있었고 살인의 경우에는 피의 복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과 재산과 피와 이름과 한 가족의 일원의 이름과 자손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룯기가 왜 이 강의의 주제에 어울리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룯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룯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나 룯이나 보

아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친족으로서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이 천국에 두고 있는 이름과 그들의 영원한 유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업을 구속하셨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있는 4장의 끝부분에 가면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많은 분들이 읽지 않고 뛰어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없는 말씀을 성경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왜 이렇게 끝나지?”하고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윗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땅과 유업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신약성경이 이 주제를 기초로 그 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업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12 말씀을 보면 이 유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하늘 유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마지막은 한 왕을 주시기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을 펼쳐 보이는 계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